VISION 11

문화
·
예술

문화·예술의 여유와 기쁨,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향유,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산업

38 문화예술공간, 다양하게 많아집니다.

'내 집 앞 미술관, 우리 동네 박물관'

- 생활권 문화시설(도서관·미술관·문화회관) 확충
- 국립근현대사박물관 및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건립

39 문화예술,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계층간 문화소외 해소, 지방문화의 진흥'

- 지역문화원 기능 강화
-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나눔 프로젝트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뉴미디어 체험교육공간 구축

40 문화예술산업,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입니다.

'문화예술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문화 산업화'

-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지원 및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 지역 프로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41 문화예술, 세계로 뻗어가겠습니다.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 전통문화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추진
- 세계적 규모의 방송한류 드라마 제작세트장 건립
- 창작물 저작권 보호와 영화산업 세계진출 지원강화

VISION 11

문화 · 예술

목표 38

문화예술공간, 다양하게 많아집니다.

'내 집 앞 미술관, 우리 동네 박물관'

주5일 근무제 및 소득증가로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시원하게 풀고 접근성을 확실히 높이기 위해 문화시설을 더 많이 건립하고, 확충해야 합니다.

생활권 문화시설(도서관 · 미술관 · 문화회관) 확충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소득수준은 늘어나면서 여가와 소비중심의 문화생활이 도래하였습니다. 생활패턴의 변화에 맞추어 흡족한 문화기반시설을 공급하겠습니다.

■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폐교나 폐동사무소 등 유휴 공유시설을 이용해 작은 도서관 · 문화예술 교육센터 등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누구나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Q)11한 나라 본 책(344~363) 2008.3.29 5:39 AM 페이지348 western

국립근현대사 박물관 및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는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20세기 성과를 상징적으로 압축해 놓은 근현대사박물관(contemporary museum)이 있습니다. GNP 2만 달러 시대의 경제성장과 함께 이른바 '세계속의 한류'라는 문화예술적 성숙을 이룬 우리나라이지만, 근현대사적 업적을 과시할 박물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진국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역사적 사료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역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취와 관련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정리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후손은 물론이고 외래관광객들이 도전과 응전의 우리 역사를 올곧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국가입니다. 한반도 산천의 진화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자연사를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통해 급격한 환경변화로 사라지고 있는 한반도의 다양한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특화된 21세기형 문화콘텐츠에 담아낼 수 있는 핵심문화기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건립

국내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은 대부분 음향시설이 불완전한 체육관,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뮤지션의 품위있는 창작·공연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도청 소재지별로 공연 및 창작스튜디오와 전문숍이 함께 갖추어져 있는 대중음악 전문복합센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대중음악 전문 복합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대중음악 전용공연장, 뮤지컬 전용공연장·녹음스튜디오·음악전문숍·음악기획제작 및 공연기획사 사무실,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춘 복합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각 지역에 대중음악전문공연장을 건립하여 창작·공연활동을 지원할 인프라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대중문화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VISION 11

문화·예술

목표 39

문화예술,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계층간 문화소외 해소, 지방문화의 진흥'

문화 수요가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지역편중현상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문화영역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상당수에 달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지방의 문화예술 활동 및 영역을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전국민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리며, 취향에 맞는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문화원 기능 강화

정부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지방의 경우 여전히 문화공간이나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문화를 부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화해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여성·노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장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0개 지방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문화프로그램을 전국의 225개 문화원에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을 돕겠습니다.



(FQ)11한 나라 본 책(344~363) 2008.3.29 5:39 AM 페이지352 western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현재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주당 1~2시간의 음악, 미술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술강사 지원학교도 전체 5,756개 초등학교 중 2,492개교(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초등학생때부터 문화예술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강사 지원학교를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게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공교육 내에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어린 학생 때부터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의 문화예술강사제도를 문화예술교사제도로 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문화나눔 프로젝트

문화예술 체험 및 참여도는 '지역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문화예술활동과 같은 생산적·창의적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으나, 문학행사, 연극, 무용 등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관람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순수예술행사 관람률 '00년 44%, '03년 38.1%, '06년 28%)

■ 정부·기업·국공립 예술기관 및 단체가 합심하여 전 국민이 골고루 문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겠습니다.

■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의 생활 속에 문화예술체험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수험생과 청소년, 중소기업 근로자, 이주노동자 등 문화적 소외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3 및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후 100일 문화대작전'(매년 11월~다음해 2월)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특공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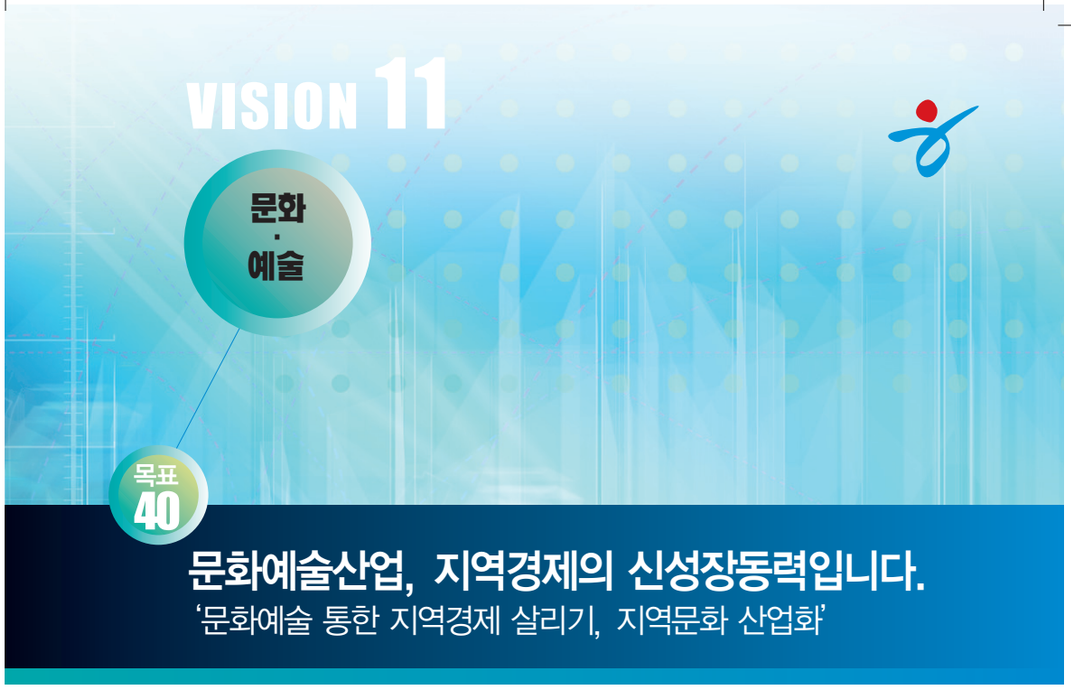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및 뉴미디어 체험교육공간 구축

21세기 미디어 시대에 영상미디어는 표현과 소통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현재 제주, 김해, 대구, 인천 등 4곳에서 운영 중이고 제천, 안동, 천안을 포함한 5곳이 준비 중이지만 전국 지역주민의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IPTV·DMB 등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UCC, Blog 등 네트워크 미디어(social network media)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일부지역 및 계층에 한정되어 아직까지 전 국민이 미디어 2.0시대 경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의 영상미디어 교육 공간이자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더욱 확대하여,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영상도서관형태의 종합적인 영상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뉴미디어 체험·교육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2.0 뉴미디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노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최근 문화예술분야의 활성화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산업의 지역적 특화전략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지원 및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문화산업은 새로운 지역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문화산업화 역량이 취약합니다. 국가차원의 지원 육성이 필요합니다.

■ 지역별로 문화산업연구센터(CRC)를 지원·육성하여 문화산업화

(FQ)11한 나라 본 책(344~363) 2008.3.29 5:39 AM 페이지 356 western

를 향한 산·학·연·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특화된 지역전략상품 개발, 핵심 인력양성 및 문화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기반경제(content based economy)를 경쟁력의 중심으로 부각시키겠습니다. 제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지방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유망 지역에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벤처캐피털 등을 집적(cluster)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보조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더해 연관 산업에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형 할인점의 등장 이후 지역문화의 중심적 교류공간인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 「재래시장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 특화제품 개발, 고유브랜드 개척 등 전통시장의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전통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 넣어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매력넘치는 젊은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를 만족시키는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FQ)11한 나라 본 책(344~363) 2008.3.29 5:39 AM 페이지 358 western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선진국형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은 생활문화사업의 핵심입니다. 국가적 관광산업의 적자 폭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관광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와 세제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고용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관광산업 경쟁력강화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매력포인트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축제, 슬로시티(Slow City), DMZ, 템플스테이 등 각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활용하여 한국대표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토개발과 연계한 크루즈 관광도 육성하겠습니다. 주요 도시별 컨벤션산업 등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관광, 지식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우리 국토를 더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 나아가 중국, 일본 등 거대 관광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2012년에는 1,000만 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래관광객 비자면제제도를 추진하고 중소규모의 중저가 호텔이 한국 전역을 찾는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책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 프로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스포츠산업의 육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구단'의 창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구단을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프로구단의 창단 및 운영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VISION 11

문화·예술

목표 41

문화예술, 세계로 뻗어가겠습니다.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한류 열풍으로 문화산업 육성의 호기를 맞이하였지만 '혐한류'와 같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수준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며, 창작물 보호를 위해 저작권 분야 등에서 국제수준에 걸맞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통문화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 추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정체성 정립과 전통문화의 상품화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에 한글, 한옥, 한식, 한복 등 '자연'과 '과학'을 핵심가치로 하는 우리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생활화하고 산업화하고 또 세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생활속에서 향유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문화원과 연계한 세종학당 개설로 한글의 국외 보급을 활성화하고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한옥의 한실(韓室)을 보급하겠습니다. 음식 콘텐츠의 보급을 통한 국외 한식당의 문화적 고품격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복 입기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FQ)11한 나라 본 책(344~363) 2008.3.29 5:39 AM 페이지362 western

세계적 규모의 방송한류 드라마 제작세트장 건립

글로벌 문화시장에서 특히 방송영상산업은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로서 고부가가치를 지향합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콘텐츠 제작시설의 대형화와 집적화를 통해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송한류를 만들어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를 대상으로 문화콘텐츠를 수출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간의 무분별한 개발경쟁과 운영부실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포스트 방송한류 확산을 위해 세계적 규모의 방송제작 공동세트장을 조성하여 테마파크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5000년의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고궁을 비롯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매머드급 세트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드라마 학교와 스튜디오를 만들어 아시아의 중심적인 방송영상물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지역별로 특화된 드라마제작 세트장을 만들어, 이를 네트워크화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물 저작권 보호와 영화산업 세계진출 지원강화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미흡한 저작권 보호는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부가판권수익(극장상영 이외의 수익)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영화, 음반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산업 전반에 걸쳐 불법복제 및 다운로드로 인해 문화예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요 국가들은 각종 조세지원제도(소득공제·세약공제·손실보전 등)를 운용하여 자국의 영화산업을 장려하고 외국의 영화 제작사들을 유치함으로써 자국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는 영화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정부가 문화예술 창작물의 불법 복제, 다운로드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외국에서 저작권보호의 재원 마련 및 저작권자들의 손해를 충당해 주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제에 관련된 모든 기기, 제품들에 대해 약간액을 부과하는 '복제 부과금제(Private Copy Levy)'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사업준비금 제도의 손금산입한도를 현행(30%)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저예산영화·예술영화·독립영화 등 수익 창출 가능성은 낮으나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영화들에 대해 영국식 손실보전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영화비 지출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를 도입하여 영화에 대한 수요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